

# 제48기 결산공고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대차대조표)

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대차대조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b>자산</b>		<b>부채</b>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4,150,303</b>	<b>I. 유동부채</b>	<b>1,914,880</b>	<b>I. 유동자산</b>	<b>2,587,330</b>	<b>I. 유동부채</b>	<b>1,123,039</b>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76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26,273	현금및현금성자산	921,35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91,406
기타금융자산	54,108	단기차입금	406,201	기타금융자산	53,111	단기차입금	368,1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95,621	선수금	26,89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05,177	선수금	2,658
단기대여금	230	당기법인세부채	29,336	선수금	51	당기법인세부채	15,549
선급금	963	유동성장기차입금	204,681	선급비용	17,356	유동성장기부채	2,822
선급비용	57,320	유동성리스부채	14,531	재고자산	420,057	충당부채	493
당기법인세자산	7,597	충당부채	1,773	반환제품회수권	18,387	환불부채	21,862
재고자산	1,337,916	환불부채	23,400	매각예정자산	51,834	기타유동부채	20,128
반환제품회수권	17,785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	34,813				
매각예정자산	198,996	기타유동부채	46,974				
<b>II. 비유동자산</b>	<b>5,075,195</b>	<b>II. 비유동부채</b>	<b>1,400,222</b>	<b>II. 비유동자산</b>	<b>3,236,591</b>	<b>II. 비유동부채</b>	<b>96,568</b>
관계기업투자	72,461	장기차입금	1,233,208	관계기업투자	30,049	장기기타채무	78,54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0,955	장기기타채무	80,567	종속기업투자	725,477	순확정급여부채	12,494
장기대여금	2,315	순확정급여부채	30,567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4,475	장기리스부채	5,532
유형자산	4,424,362	장기리스부채	48,067	유형자산	1,897,438		
사용권자산	93,006	이연법인세부채	1,128	사용권자산	8,642		
무형자산	138,251	기타비유동부채	6,685	무형자산	133,017		
기타금융자산	18,867			기타금융자산	14,544		
장기선급금및선급비용	26,324	<b>부채총계</b>	<b>3,315,102</b>	장기선급비용	22,738	<b>부채총계</b>	<b>1,219,607</b>
이연법인세자산	98,654			이연법인세자산	210,211		
		<b>자본</b>				<b>자본</b>	
		<b>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b>	<b>5,772,289</b>			<b>I. 납입자본과 적립금</b>	<b>4,604,314</b>
		자본금	388,003			자본금	388,003
		자본잉여금	1,045,201			자본잉여금	1,014,666
		기타자본	(146,701)			기타자본	(146,7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12,5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3,014
		적립금	2,481,265			적립금	2,481,265
		이익잉여금	1,592,002			이익잉여금	344,067
		<b>II. 비지배지분</b>	<b>138,107</b>				
		<b>자본총계</b>	<b>5,910,396</b>			<b>자본총계</b>	<b>4,604,314</b>
<b>자산총계</b>	<b>9,225,498</b>	<b>부채및자본의 총계</b>	<b>9,225,498</b>	<b>자산총계</b>	<b>5,823,921</b>	<b>부채및자본의 총계</b>	<b>5,823,921</b>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03월 17일

삼성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경계현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4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윤 훈 수